



“날아봐 저 하늘 높이 ... 노래해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져요

헝그리 복서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인생역전' ... 신안 가거도 출신 테너 조용갑

“이탈리아어로 ‘라 펠리체’(La Felice)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1층 정면에 무대가 마련되고 100~150석 정도의 객석을 놓을 겁니다. 지하에는 방음시설을 갖춘 연습실이 들어섭니다. 학생들 성악 교육도 하고, 공연무대도 마련되고, 커피는 물론 저녁식사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콘서트 홀로 만들겠습니다.”

테너 조용갑(47)씨의 삶은 오페라처럼 드라마틱하다.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 가거도가 고향인 그는 ‘권투선수 출신 테너’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링에 올라 챔피언을 꿈꾸던 그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이탈리아로 성악 유학을 떠나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며 ‘동양의 파바로티(Pavarotti)’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아트홀 ‘라 펠리체’를 개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릴 적, 그는 원망이 가득한 소년이었다. 신안 가거도에서 배 사업을 하였던 부친은 당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폭음을 했다. 그는 자다가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에서 도망치기 일쑤였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성경간 그의 삶은 고달팠다. 서울 공릉동에 살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아파트단지 차 세차를 하는 등 온갖 고된 일을 닦지는 대로 했다. 먼저 서울에 와 있던 누나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나가게 됐다. 또 누나의 권유로 서울 기계기술고 야간에 다녔다.

야간고에 다닐 때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급우를 돕기 위해 권투를 배우게 됐다. 22살 때 프로 테스트에 합격하면서 아마를 거치지 않고 프로선수로 데뷔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6년간 링에 오르면 그의 전적은 9전5승1무3패. 1990년대 후반, 한국챔피언 리그에서 패배하며 권투를 접었다.

서울에서 살기 위해 고전분부하던 이 시기에 ‘노래’가 그에게 위안을 줬다. 권투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음악이 항상 함께했다.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주변 사람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성악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성악을 공부해 보는 게 어떨겠느냐?” 그의 이 한마디 격려가 오늘의 테너 조용갑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7)의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반복해서 들었다. 이탈리아어를 전혀



지난해 3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에 선 테너 조용갑. (왼쪽에서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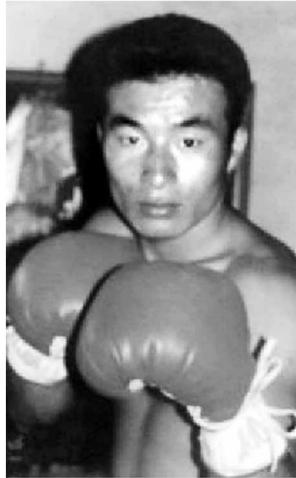
챔피언 꿈꾸던 신안 섬마을 소년 독지가 후원 이탈리아 성악 유학 각종 콩쿠르 나가 28차례 1위 라보엠 데뷔... 유럽 오페라 무대 300회 이상 주인공으로 맹활약 재능 있지만 가난한 학생지도 아트홀 ‘라 펠리체’ 다음주 개원

알아듣지 못했지만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적어가며 따라 불렀다. 또 도봉산에 올라 발성연습을 했다. 레슨을 받을 돈이 없어 그렇게 테이프만 들으며 10년간을 독학했다.

27살 때인 1997년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 독지가가 유학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 이탈리아에 가서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해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의 인생 2막을 여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 명문 ‘산타체칠리아 음악원’(Santa Cecilia Conservatory of Music)에 지원해 합격했다. 비록 음대에서 정식으로 성악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독학한 그의 목소리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투에서 불리했던 체형이 성악에서는 훌륭한 울림통 역할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시간 정도를 연습하며 ‘성대결절’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교수의 권유를 받고 나간 콩쿠르에서 그의 기량이 빛을 냈다. 각종 콩쿠르에서 28 차례나 1위를 차지했다. 졸업 후 그는 이탈리아에서 9년, 독일에서 5년 등 14년 동안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300회 이상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7)의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반복해서 들었다. 이탈리아어를 전혀



20대 ‘헝그리 복서’ 시절의 조용갑

지난 2011년 7월, 국내 북귀무대에 나눔 활동을 계기로 우연하게 이뤄졌다. 로마의 한인교회를 위한 기금모금차 서울에 왔다가 마침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주최의 ‘토스카’ 공개 오디션에 참여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카바라도시) 역을 맡아 무대에 올라 호평을 받았다. 이듬해 귀국한 그는 각종 공연과 강연, 재능있는 학생 지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강연 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에 방점을 찍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면, 뻥(배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돈과 뻥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돈을 보고 꿈을 가지지 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환경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을 갖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한다. 다음주 문을 여는 ‘라 펠리체’ 역시 그러한 미래 구상의 일부이다. 그의 도전은 다시 시작이다.

/서울=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제1회 현대미술강좌’

11월8일까지 총 8회 열려 18일 이태호 교수 첫 강의



또 성완경 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의 ‘민중미술의 두 얼굴’(7월11일), 박영택 경기대 교수의 ‘포스트모더니즘-미술의 명암’(8월8일), 조광석 경기대 교수의 ‘새로운 매체, 미디어아트와 전개’(9월12일) 강의를 이어간다. 10월17일에는 박양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가 ‘한국문화예술과 국제사회를 본다’에 대해, 11월14일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이 ‘한국 근·현대미술 개성과 토론’을 연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제1회 현대미술강좌’를 마련했다.

현대미술 이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강좌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다시 본다’를 주제로 4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총 8회 열린다.

18일 첫 강좌는 이태호(사진) 명지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조선후기 회화전통과 근대화’에 대해 들려준다. 이어 5월16일에는 최태만 국민대 교수가 ‘근대미술의 태동과 일제강점기’에 대해, 6월27일에는 서성록 안동대 교수가 ‘모더니즘과 추상미술의 수용과 한계’에 강의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7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가 ‘2017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음악산업 전문 교육과정 ‘피크뮤직 아카데미’, 신인뮤지션을 발굴·양성하는 ‘뮤지션 인큐베이팅’, 음악 콘텐츠 창·제작을 지원하는 ‘음반 및 공연제작지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피크뮤직 아카데미’는 ‘음악비즈니스’, ‘미디어프로덕션’, ‘프로토크스’, ‘사운드 엔지니어’ 등 4개 과정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 도입된 ‘프로토크스’ 과정

은 레코딩 특화 시스템 ‘Avid Pro Tools’의 100레벨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2018년도에는 200레벨, 300레벨 상위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음반 및 공연제작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지원비 30%가 증액됐다.

참가신청은 23일(아카데미·인큐베이팅)과 27일(음반 및 공연제작지원)까지 접수받는다. 상세 모집요강과 신청양식은 홈페이지(peakmus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3일 오후 7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층 라운지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62-654-362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생 수업료 절반 지원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분야 매개역량 양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 수업료 절반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재단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지난 2015년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에 거주하는 예술인 등 도민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국가 공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모집분야는 디자인, 공예, 미술, 연극, 영화, 사진 등 6개 분야이며 올해부터는 문화예술 6개 분야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비는 1학점당 8만원이며,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는 5과목(10학점), 비전공자는 15과목(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재단에서는 교육생에게 전체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메일(spoons@jact.or.kr)로 접수하면 되며, 교육기간은 6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문의 061-280-58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